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문헌들의 기본정신과 지위, 주요사상리론에 대하여

한동성

1. 력사적문헌들의 기본정신과 지위에 대하여

△문헌들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강령적문헌들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은 주체 100 년사가 새겨준 철의 진리를 영원한 지침으로 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자주,선군,사회주의의 한길로 나아가 주체혁명위업,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자는것이다.

△문헌들의 력사적지위

첫째로, 불세출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민족의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 주체 100 년사에 대한 력사적총화이다.

둘째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오직 수령님식,장군님식으로 계승완성해나가려는 확고부동한 의지의 선언이다.

셋째로, 새로운 주체 100 년대 조선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진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이다.

2. 력사적문헌들에 대한 학습에서 깊여야 할 주요사상리론에 대하여

1)주체 100 년사가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강성번영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확증해준 력사라는데 대하여

-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다.

-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이 경이적사변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선군혁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이다.

- 수령의 군대,당의 군대,인민의 군대로 긍지높고 무적필승의 위용을 떨치는 백두산 혁명강군이야말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남기신 최대의 애국유산이며 이런 고귀한 유산을 물려받은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며 자랑이다.

2) 새로운 주체 100 년대 혁명의 총적방향과 백년대계의 전략,그 승리의 담보에 대하여

-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한치의 드팀도,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오직 수령님식,장군님식으로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야 한다.
-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선군의 길,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
-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우리의 창창한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장군과 불패의 군민대단결이 있으며 당의 위업을 랑심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충직한 인민이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3)수령영생위업을 새로운 높이에서 실현할데 대한 숭고한 의도와 그 근거에 대하여

-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변함없이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공화국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셔야 한다.
-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우리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원칙적요구이다.
- 그것은 다음으로 오랜 기간 당과 국가를 이끄시여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으로 보아도 응당한것이다.
- 그것은 또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감정과 념원에도 맞으며 도덕의리적으로 보아도 마땅한것이다.

4)조선로동당이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동지의 당이라는데 대하여

-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창건자이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다.
-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이며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김일성주의

가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시었으며 특히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리론을 심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리론을 제시하시였다.

·이미전부터 당원들과 인민들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사상들을 결부시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불러왔고 그것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인정하여왔지만 한없이 겸허하신 장군님께서서는 당의 지도사상을 자신의 존함과 결부시키는것을 극력 만류하시였다.

·오늘 당과 혁명은 주체의 사상,리론,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고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이며 그것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계승이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다.

5)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수령님식,장군님식으로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과업에 대하여

①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②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③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철저히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④선군혁명로선을 틀어쥐고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⑤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⑥교육,보건,문학예술,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⑦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여야 하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6)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고전적정식화에 대하여

- 일심단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이고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수령,당,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이다.

- 선군은 우리의 자주이고 존엄이고 생명이며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고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 인민생활문제를 풀고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국가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총적목표는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이며 그 실현 방도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데 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함남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경제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길에 들어서야 한다.

7)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는 숭고한 인민관에 대하여

-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합니다.

·일군들은 누구나 수령님식,장군님식 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

·일군이라면 언제나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인민들의 생활문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며 인민들의 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늘 사색하고 진심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밖에 모르고 인민을 위한 일을 성실하고 능숙하게 하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어야 한다.

*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4 월 27 일)

* 《로동신문》 5 월 12 일 사설 《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깊이 간직하자》